

# 反復法の 詩論的 考察

文 炳 郁\*

人間이여, 너는 미소와 눈물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의 鍾다. —바이런—

## 1.

詩文學으로서의 反復法 repetition은 韻律上的 反復, 특히 律格的 反復 metrical-repetition이 主流를 이루어 왔다. 이는 反復法이 在來의 詩格形成에 寄與한 詩史의 行蹟이나, 詩의 純粹 絶對性을 表出하는 韻律的 能力 등을 감안한다면 能히 그렇 만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律格的 反復이 그 組織力으로 言語的 反復 word-repetition을 壓倒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들의 관계는 最小限 相補・竝行的인 것이어야 하며, 더 根本을 말하자면 律格的 反復은 言語的 反復이 詩的 에스프리에 接近하는 意圖에 따라서 運用되는 것이다. 즉, 反復法이란 一次의으로 強調的 修辭라는 修辭法 本來의 言語的 屬性을 가지고 “意味를 生成시키는 소리의 연속”<sup>1)</sup>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反復法은 韻律上的 問題以上으로 詩精神의 表出이라는 言語傳達의인 側面에서 考察되어야 할 것이다.

“理가 氣에 先行되는 것”<sup>2)</sup>으로 본 우리의 옛 詩論과 “律格이 感性的 刺戟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知的 反應에 있는 것”<sup>3)</sup>이라고 한 西歐 現代의

\* 聖心女大 教授(國文學專攻)

1) R. Wellek and A. Warren: 「Theory of Literature」, a peregrine book 1970. p. 158.

“Every work of literary art is, first of all, a series of sounds out of which arises the meanings.”

2) 成倪: 虛白堂文集, 卷之六. 奎章閣本

“言詩者 論氣而不論理 非也 氣以行於外 理以守諸內 守於內者 不固 則行於外者 未免泛駕而籠馭 詩以理爲貴也 善爲諸者 悟於理 故能 不失根本”

여기 “理”와 “氣”를 本稿에서는 汎詩論的인 “內容”과 “律格”으로 援用하였음.

3) I. A. Richards: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 Routledge paperback 1960.

理論은 서로 다를 바가 없으며, 이들은 言語的 反復의 詩論的 穿鑿에 正當한 理路가 되어 주리라 생각한다.

어떤 詩派는 리듬을 拒否하면서도 그들의 우수한 作品에 리듬이 常存하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sup>4)</sup> 이 경우의 “리듬”에 결정적 구실을 하는 것은 詩的 感動要素로서의 反復法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詩論<sup>5)</sup>은 言語的 詩的 造形性도 리듬도 모두 喪失한 現代詩가 “言語에서 言語形으로의 飛躍”을 꾀하여 詩의 美學을 持續시킬 수 있는 것은 反復法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反復法, 특히 言語的 反復은 詩의 發祥的 局面으로 보아 詩的 表現의 端初인 동시에, 散文的 時代에 處하여 여러 가지 否定的 挑戰에 直面한 現代詩의 存立을 위한 最後 堡壘的 表現手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2.

反復法の 起源은 워라셰크가,

모든 未開人의 歌謠 가운데 가장 현저한 특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을 자주 되풀이하는 것.<sup>6)</sup>

이라고 말한 데서 抽出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물론 原始綜合藝術 ballad dance로서의 口號·呪文·歌詞 등의 反復에서 派生 分化된 것임을 前提로 한다. 이 경우의 “無意味의 反復”은 그것이 아무리 韻律上의 方便이라 하더라도 詩心의 發願이라는 言語行爲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看過할 수는 없다.

p.139.

“It is not in the stimulation, it is in our response.”

여기 “it”은 “metre”임.

崔載瑞：文學原論. 春潮社 1957. p.191.

“韻律로 말미암아 覺醒되는 感情과 注意에 대해서 詩는 만족을 주어야 하는데, 그 糧食은 물론 詩의 內容이다.” 云云도註 2), 3)과 같은 見解로 봄.

4) 黃東奎：「사랑의 뿌리」, 文學과 知性社, 1977, p.139 參照.

5) 金南石：「詩修辭學」, 現代文學社, 1972, p.79 參照.

6) 워라셰크：古代音樂.

鄭炳昆·李御寧：「古典의 바다」, 玄岩社, 1977, pp.26-27 參照.

譬喻나 象徵을 알아보는 데는 때로 高度의 知的 能力이 요구되는데 비하여 리듬은 상당한 의미에서 人間 自生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sup>7)</sup>

이 말은 反復律<sup>8)</sup>의 根源의 存在性을 위와 같은 觀點으로 규정짓는 데 결정적인 의미를 內包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코올리지도 말하기를,

韻律의 起源은 精神內部에서 熱情의 發動을 抑制하려는 意志의인 効力으로 말미암아 結果되는 平衡狀態에 있다.<sup>9)</sup>

라고 하였다. 이것은 詩作上의 意圖的 配慮에서 한 말이기 는 하나, 韻律의 屬性이 反復이라면, 이는 곧 反復律의 起源에 관한 言及일 수 있고, 또한 이 말에서 反復律의 起源이 知的 統制下에서 이루어졌음을 아울러 알 수 있다. 한편 劉勰은

夫三皇辭質 心絕於道華 帝世始文 言貴於敷奏<sup>10)</sup>

라고 하여, 東洋에 있어서의 “數衍의 敘述”이 五帝時代에 비롯하였다고 하였는 바, 이 數衍의 敘述에 “首尾相應”<sup>11)</sup>, “連珠”<sup>12)</sup> 등이 두루 포함될 것이나, 그 중 가장 整齊된 樣式의 하나가 連珠라고 생각된다. 이 連珠에 관한 소개를 하여 보면,

揚雄軍思文闊 業深綜述 碎文環 聳爲連珠 其辭雖小而明潤矣

夫文小易周 思閑可讀 足使義明而詞淨 事圖而音澤 磊磊自轉可稱珠耳<sup>13)</sup>

여기서 “짧으면서도 번득거리는 어휘에 명료한 주장과 淸淨한 말, 원만한 내용과 운택한 가락”<sup>14)</sup>을 所有하고 있는 것이 連珠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7) 黃東奎：上揭書，pp. 139-140.

8) 反復法을 子先 韻律과의 共存狀態에서 把握하기 위한 方便으로 “反復律”이라는 術語를 사용하기로 함.

9) Coleridge: Biographia Literaria.

金春洙：詩論，松園文化社，1976，p.9에서 再引用.

10) 劉勰 著/崔信浩 譯註：「文心雕龍」，玄岩社，1975，p.169，p.319.

11) Ibid. p.306，p.321 參照.

12) “連珠”는 본시 對句形式을 말하는 바, 구슬을 꿰뚫는 言語表現에서 反復의 技法을 類推할 수 있음.

13) Ibid. p. 253.

14) Ibid. pp. 56-58 passim.

反復法の 根源的 性格의 一端을 잘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詩의 模倣媒材는 律動과 言語와 諧音이다. 이들 媒材는 韻律을 生成한다. 韻律은 여러 가지 詩의 樣式에 따라 相異한 것이 混合되기도 하고, 한 종류의 韻律이 여러 번 사용되기도 한다.<sup>15)</sup>

이 말에 나타난 反復의 樣式은 模倣을 위한 技術이다. 이 점이 劉勰에게서는 精神活動의 敘述, 事物의 形象化를 위한 光彩있는 文飾으로 지적되고, 그 文飾의 方法은 色彩, 音律, 情緒로 提示되었다.<sup>16)</sup> 위 두 견해 중 “律動—色彩, 言語—情緒, 諧音—音律”의 相應關係는 反復의 詩表現의 基本要件을 設定함에 있어서 서로 사이에 뚜렷한 共通性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 점은 反復法의 形成要素를 구체적으로 糾明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注視의 대상이 될 만하다 하겠다.

다시 現代的 詩論으로 돌아와 이를 考察하여 보건대, 趙芝薰은 詩表現의 原理 중 하나로 諧調를 들고, 이어서 詩形式이 다른 文學과 구별되는 하나의 特徵은 言語의 律動的 造形이라고 하였다.<sup>17)</sup> 이 律動的 造形의 諧調는 反復法에 依存하므로써 비로소 可能하다. 이 점을 I. A. 리처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Rhythm and its specialised form, metre, depend upon repetition, and expectancy. Equally where what is expected recurs and where it fails, all rhythmical and metrical effects spring from anticipation. As a rule this anticipation is unconscious. Sequences of syllables both as sounds and as images of speech-movement leaves the mind ready for certain further sequences rather than for others.<sup>18)</sup>

또한 그는 자신이 위에서 말한 反復의 表現으로서의 “言語運動의 心像”

15) Aristoteles: 「詩學」第一章, 博英社, 1978, pp.33-37 passim.

16) 劉勰 著/崔信浩 譯註: 上揭書, p.301.

“若乃綜述性靈 敷寫器象 鑷心鳥跡之中 織辭魚網之上 其爲彪炳 鐫采名矣 故立文之道 其理有三 一曰形文 五色是也 二曰聲文 五音是也 三曰情文 五性是也”  
上揭書, p.131 參照.

17) 趙芝薰: 「詩의 原理」, 新丘文化社, 1959, p.132 參照.

18) I. A. Richards: 上揭書, p.134.

images of speech-movements을 “神秘로운 跳躍으로서의 接近”<sup>19)</sup>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는 이것을 “催眠狀態”로써 다음과 같이 解明하고 있다.

This texture of expectations, satisfactions, disappointments, surprisals, wich the sequence of syllables brings about, is rhythm. And the sound of words comes to its full power only through rhythm. Evidently there can be no surprise and no disappointment unless there is expectation and most rhythms perhaps are made up as much of disappointments and posponements and surprises and betrayals as of symple, straightforward satisfactions. Hence the rapidity with which too simple rhythms, those which are too easily 'seen through', grow cloying or insipid unless hypnoidal states intervene, as with much primitive music and dancing and often with metre.<sup>20)</sup>

여기서 주의를 끄는 것은 反復의 表現이 律動에 便乘하면서 期待・滿足・失望・驚異 등을 表出하는 힘을 발휘한다는, 即 反復法 爲主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에서 밝히고 있는 “催眠狀態”라는 反復法의 機能도 이를 動機의 根源性的의 하나로 把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反復法의 起源을 言語의 反復의 側面으로써 整理하기 위하여 다시 I. A. 리처즈의 適確한 見解를 引用하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律格을 단지 韻律의 特殊한 形으로서, 곧 말과 말의 相互連絡을 더욱 강화시키고, 기대를 한층 강하게 제어하는 것으로서 다루어 왔다. 하지만 律格에는 더욱 다른, 어느 경우에는 더욱 중요한 몇 가지 効力이 있다. 律格을 催眠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은 아주 예로부터 해오고 있는 일이다. 다시 한번 코올리지를 끄집어내어 보면 그는 이 점에 관해서 완전히 正鵠을 쫓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매우 核心에 다다른 의견을 펴고 있다. 「그것은 全身의인 感情과 注意力的의 어느 것도 한층 생생하고도 敏感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 자극은 경이감을 계속해서 자극함으로써, 곧 부단히 만족되어서는 다시 되풀이해서 자극되는 好奇心의 민감한 交替現象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交替現象은 극히 가냘픈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뚜렷한 意識의 對象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影響力이 모이면 상당히 큰

19) Ibid.

“...‘when it approaches with a divine hopping.’ The joyful wisdom.”

20) Ibid. p 137-138.

이 見解는 N. Frye도 같은 바로서, 다음을 참고할 수 있음.

N. Frye: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p.327.

것이 된다. ……」<sup>21)</sup>

이처럼 I. A. 리처즈가 인용한 코올리지의 말에는 譬喩의 說明이 敷衍되어 있다. 즉, 藥物을 내포한 空氣, 活氣 띤 對話場所의 술 따위는 그 자체가 의식되지는 않으나, 漸進的인 作用은 強力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이츠는 律格에 관하여 “마음을 가라앉혀 自覺된 恍惚로 이끄는 것<sup>22)</sup>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이들을 모두 反復法의 起源을 追求한 점으로 볼 때, 反復法이 律格과 共存하면서도 그 存在理由는 律格을 超越한 言語의 次元에 있음을 立證한 것이라 하겠다.

### 3.

反復法의 修辭學的 定義를 몇 가지 列擧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㉞ 修辭法의 技巧 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反復法이다. 경우에 따라 문장의 뜻을 強調하기도 하고, 또는 문장의 均衡을 이루기도 하여 문장을 裝飾하므로써 그 문장에 어떠한 變化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反復法이라는 技巧이다.<sup>23)</sup>
  - ㉟ 反復法: 같은 어귀나 類似한 어귀로 되풀이하는 수사법의 한 가지. 文意를 더욱 뚜렷하게 하고 文章에 妙味를 부여하기 위한 形式.<sup>24)</sup>
  - ㊱ 反復法: 同一한 語句를 되풀이해서, 그 뜻을 強調하고, 文章에 興을 돋구어, 一種의 律調를 갖게 한다.<sup>25)</sup>
  - ㊲ 同一한 語句를 反復하여 強烈하고 深刻한 感興을 주고, 아울러 韻律의 圓滑에서 오는 美를 느끼게 하는 方法을 反復法이라고 한다.<sup>26)</sup>
  - ㊳ 反復法은 同語句, 同單語, 同義語의 반복으로 거세고 깊은 感動을 자아내어 詩의 흐름에 있어서의 圓滑한 調和美를 이르는 법이다.<sup>27)</sup>
- ㉞, ㉟, ㊱)는 修辭學一般의 定義인데 비하여 ㊲)는 詩에 다소 接近된 것이고 ㊳)는 원래 詩論의 定義로 내려진 것이다. 이 점은 “강조”(㉞, ㉟, ㊱)가 “感

21) I. A. Richards: 上揭書 p.143.

22) Ibid.

23) 金相善: 「文章修辭學」, 一潮閣, 1975, p.218.

24) 文德守: 「世界文藝大辭典」, 成文閣, 1975.

25) 朴木月: 「文章講話」, 啓蒙社, 1959, p.243.

26) 朴沅植: 「修辭學」, 現代文學社, 1976, p.205.

27) 金南石: 上揭書, p.78.

興”, “感動”(㉑, ㉒)으로 次元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곧 알 수 있다. 좀 더 살펴 보면, “장식”(㉓), “율조”(㉔)가 “圓滑의 美”(㉑, ㉒)로 연결되는 관계와, “변화”(㉕)가 “묘미”(㉖)를 거쳐서 “興”(㉑)으로 하여 “感動”(㉒)으로 이어지는 관계와, 그리고 “균형”(㉗)이 “調和”(㉘)로 연결되는 관계등에서 反復法은 詩的 表現力이 豊富한 것임이 스스로 立證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分析行爲로 얻은 것은 한갓 詩論的 可能性의 示唆에 不遇한 皮相的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 必要한 것은 詩를 위한 反復法의 本質的 概念把握이며, 이것을 토대로 한 詩論的 方法論의 基礎를 摸索하는 일이다.

T. 토도로브는 大學 텍스트의 構造를 統辭의 局面에서 다루면서 詩는 論理的 時間的 順序보다 空間的 順序에 따라 조직되는 점에 着眼하고 있다. 따라서 詩에 있어서 論理的 관계는 二次的인 면으로 물러나거나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sup>28)</sup> 이 見解에 反復法을 適用시켜 보면 律格보다 言語的 側面이 뚜렷이 浮刻됨을 알 수 있다. T. 토도로브는 말하기를,

사실 야콥슨이 對句에 관해서 논한 다음에 幾何를 참조하고 있는 것이나, 또 <詩的 機能>에 관한 그의 가장 추상적인 표현이 다음과 같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 <詩에 있어서 예술적인 기교의 본질은 언어의 어느 차원에 있어서나 되풀이되는 反復에 있다.> <어느 차원에 있어서나>라는 表現은 공간적인 關係의 遞在性을 잘 지적하고 있다: 하나의 이야기 역시 그 전체가 對稱·漸層·反復·對照 등에 토대들함으로써 이 공간적 順序를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sup>29)</sup>

라고 하였다. 이는 反復法이 詩文學上 構造主義의 眼目에 의하여 捕捉된 理論으로서 값진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獨逸의 學者들에 의하여 反復法의 性格이 스타일과 哲學的 問題 사이에서 考察된 事例도 볼 수 있다.<sup>30)</sup> 또한 反復法의 詩論이 무엇보다도 가장 體系의 으로 研究된 것은 美國의 分析批評에 의한 것이다.

K. 버크는 그의 反復的 形式 repetitive form<sup>31)</sup>에 관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28) T. Todorov: 「Qu'est-ce que le structuralisme?」 2. poétique. Seuil, Paris. 1973. Coll. Points.

郭光秀 譯: 「構造詩學」, 文學과 知性社, 1977, pp.94~95 參照.

29) Ibid.

上掲書 脚註——R. 야콥슨: 「Questions de Poétique」, Seuil, 1973, p.234.

30) R. Wellek and A. Warren: 上掲書, pp. 182~183 參照.

31) K. Burke: Counter statement 1931. 世界文藝大辭典, 成文閣刊, 參照.

사실을 學論하였다. 그것은 始終一貫 하나의 原因을 새로운 外形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되풀이하는 形式으로서, 서정적 무드를 주는 이미지의 연속, 한 가지 태도를 계속하는 풍자적 연속, 無韻詩 blank verse의 규칙적 리듬, 三韻句法 terza rima의 脚韻組織 등에서 반복을 통하여 그 반복의 배후에 있는 원리를 의식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주제를 말하는 유일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Y. 윈터즈는 K. 버크의 이 이론을 擴大 援用하여 反復의 方法 method of repetition<sup>32)</sup>을 考察하였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① 이것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오랜 방법이며, 오늘날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짧은 서정시에 한하여 사용된다면, 지금도 더욱 큰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 방법은 한 테마를 몇 개의 聯으로 계속 되풀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 反復에서 사용되는 말과 이미지는 자꾸 변화한다.

② 반복되는 테마는 각각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순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상의 두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 反復의 方法에 의하여 나타난 테마가 비록 패리프레이스될 수 있다하더라도 그 패리프레이스된 이상의 무엇을 지니게 되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하였다.

#### 4.

反復法の 種類는 西歌의 경우 두 가지 側面에서 分類할 수 있다. 하나는 反復法 自體에 의한 分類<sup>33)</sup>, 다른 하나는 詩形式에 의한 分類<sup>34)</sup>이다. 이

K. Burke가 設定한 5가지 form(syllogistic progressive form, qualitative progressive form, repetitive form, conventional form, minor or incidental form) 중의 하나.

32) Y. Winters: The Experimental school in American Poetry. 世界文藝大辭典 成文閣刊 參照.

Y. Winters는 詩의 構成法을 7가지로 分析하고 그 중의 하나로 method of repetition을 設定하였다.

33) 그 種類 및 해당 작품 한두 편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同語反復 dilogy (「靑山別曲」, 朴斗鎭: 「해」), 異語反復(「龍飛御天歌」 第二十章, 金素月: 「山」), 疊語反復 epizeuxis(「龜旨歌」), 頭語反復 anaphora(「公無渡河歌」, 金岸曙: 「三水甲山」), 結語反復 epiphora(「月山大君」: 「秋江에」, 辛夕汀: 「밤을 지내 고」), 頭結語反復 symploce(「公無渡河歌」, 朱耀翰: 「눈길」), 頭結同語反復 epanadiplosis(金永郎: 「오-매 단풍들것네」), 交差反復 chiasmus, antimetabole



중 前者는 그 細部의 基準이 우리가 그들 西歐의 경우와 다른 점이 있는 채 모두 우리에게 適用되지만, 後者는 詩人이 意圖的으로 西歐의 詩形式을 模倣하지 않는 限, 우리의 詩에 適用되지 않는다.<sup>35)</sup> 이 점에 관한 論述은 本稿의 論究對象 밖이므로 別稿로 미뤄 둔다.

反復의 方法은 自體的으로도 매우 多樣한 樣式을 所有하고 있을뿐더러 다른 여러 修辭技巧과의 親和力이 넓고 強하기 때문에<sup>36)</sup> 그 效能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反復法에도 短處는 있다. 그것은 反復을 贅辭로써 連發하거나 가락을 憑藉하여 文飾을 彌縫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특히 토오톨로지 tautology의 無意味한 濫用이 가장 흔한 弊단일 것이다. 그러기에 劉繩은 韻, 卽 反復의 中庸의 驅使를 말하였을 것이며,<sup>37)</sup> 李奎報도 이의 節制를 強調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sup>38)</sup>

한편, 反復法의 詩의 效能이 反復法을 考慮하지 않은 경우와의 相對的 關係에서 顯격히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예컨대,

富弼一日詠春詩曰 柳色千絲綠 桃花萬點紅 忽於空中鄭鬼批富弼頌曰 千絲萬點 有孰數之也 何不曰 柳色絲絲綠 桃花點點紅<sup>39)</sup>(傍點筆者)

(朴載崙:「메마른 言語」), 前辭反復 anadiplosis(李滉:「古人도」, 楊明文:「어머니」), 回歸反復 epanodos(朱耀翰:「웃」), 漸層의 反復 climaxical repetition(「恩母曲」, 李箱:「詩第2號」), 換位反復 conversational repetition(「動動」, 金素月:「朔州龜城」), 逆對句反復 antinethesis(鄭澈:「關東別曲」, 「遊山歌」), 連辭疊用 polysyndeton(「靑山別曲」), 語根反復 polyptoton(金素月:「往十里」), 感嘆反復 diacope(韓何雲:「메모」), 間歇的 反復 parison(辛夕汀:「꽃더불」), 頭韻 alliteration(朴木月:「나그네」), 腰韻 internal rhyme(徐廷柱:「국화 옆에서」), 腳韻 rhyme(金永郎:「돌담에 속삭이는 햇말」)등.

34) iambic pentametre, the sonnet, the ode, the ballade, the sestina, the elegy, the madrigal, the villanelle, the rondel, the rondeou, the triolet 등.

35) 예컨대, 下築魯의 「저녁놀빛」이 sonnet를 본뎠으나, 完전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36) 修辭技巧 중의 誇張, 咏嘆, 列舉, 漸層, 漸降, 對照, 抑揚, 問答, 美化, 連鎖 등 一連의 強調法은 모두 연계성이 있으며, 擬聲, 擬態, 諷諭, 重義 등 比喻法과 設疑, 對句, 倒置, 逆說 등 變化法도 밀접한 關係가 있음. 此項은 別稿의 詳述을 期約함.

37) 劉繩 著/崔信浩 譯註: 上揭書 p.143, p.306 參照.

38) 李奎報:「白雲小說」詩話叢林手抄本.

“詩有九不宜體……押強韻无根據 是挽駑不勝體也 不揆其才 押韻過差 是飲酒過量體也……詞若不刪 是莠莠滿田體也……”

39) Ibid.

이 글에서 情緒의 深度와 想像의 幅이 얼마만큼 달라지는가를 端的으로 알 수 있으며, 이러한 事例는 鄭夢周의 「丹心歌」 漢譯詩에서도 드러난다.<sup>40)</sup>

反復法은 情緒的 美感의 高揚, 思想의 理知的 強調, 宗教的 呪術的인 心靈의 發願등, 가장 高調된 詩의 脈絡의 表出을 위한 最善의 方法이다. 따라서 反復法의 詩의 效能을 어떤 基準에 의하여서든 遺漏없이 枚擧하기란 거의 不可能한 일이다. 生死觀에 관한 肯定 또는 否定精神, 美醜에 대한 愛憎의 想念, 그리고 善惡의 明哲한 是와 非 등이 모두 그 對象이 되기 때문이다. 四端七情이 反復의 表現과 無關할 수 없으며, 人生觀, 信仰觀이 또한 그러하다. 다만 이들이 現象의 強調와 精神의 沒入을 求心點으로 하여 集中되어 있다는 점만이 분명할 뿐이다. 이러한 狀況으로 미루어, “強調와 呪術”을 反復法의 究竟의 效能으로 規定하는 見解<sup>41)</sup>는 一端 納得할 만한 것이다.

以上の 論據로써 韓國詩를 考察한 바 몇 가지 類型만을 여기 摘記하고자 한다. 「龜旨歌」에 쓰인 初句 呼格의 疊語反復 epizeuxis은 熱烈한 發願의 呪術的 魔力을 表出한 하나의 典型 pattern이다. 이것이 「海歌詞」 및 櫟翁碑說前集二의 「龜乎龜乎」로 傳承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公無渡河歌」에 나타난 頭結語反復 symplorce은 죽음을 否定하는 極限의 絶叫 또는 痛哭의 原型이다. 鄉歌 「風謠」와 李滉의 時調 「古人도」, 그리고 楊明文의 自由詩 「어머니」 등에 驅使된 後辭反復 anadiplosis은 無作爲的인 熱望에 說得力을 漸高시켜 주는 구름다리와도 같은 機能을 다하고 있다. 韓龍雲의 「알 수 없어요」, 徐廷柱의 「菊花 옆에서」의 結語反復 epiphora은 秘境에의 想像力을 無限大하게 擴散시켜 주고 있다. 李箱의 「烏瞰圖」, 金洙暎의 「꽃잎 1·2」 등에서는 反復法을 통하여 不安意識이 條件反射되고 있다.<sup>42)</sup> 云云. 그런데 이와 같은 詩論行爲는 詩를 通한 反復修辭의 研究가 窮極이 아니요, 詩精神의 合理的인 解明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얻어진 모든 것을 資料로 한 詩精神의 類型 整理가 어떠한 形態로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0) 鄭夢周: 「丹心歌」

“此身死復死 百番更死了”(高麗史, 句五志所載)와 “此身死了死了 一百番更死了(海東樂府, 圃隱集所載)를 그 資料로 함.

41) 黃東奎: 上揭書, pp.151~157 參照.

42) Ibid. pp. 96~100 參照.

## 5.

詩의 存立에 있어서 反復法은 어떠한 對象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譬喩를 빌면, 그것은 人間生存을 위한 心臟의 脈動과도 같은 것이라고 한다.<sup>43)</sup> 즉, 表出되는 것은 鼓動이라는 리듬이지만, 內在, 恒存하여 주는 것은 心臟이라는 意味內容이다. 이것이 곧 詩的 反復法の 存在性이다. 이 점은 本稿에서 反復法の 究竟을 律格的 反復이 아니라, 言語的 反復으로 設定한 것과 一致하는 것이다.

本稿는 反復法の 起源을 原型批評理論에서, 그 性格을 構造主義에서, 그리고 그 詩論의 定立을 分析批評에서 찾아 보았다. 특히 東洋的, 韓國的 脈을 찾아, 이를 上記 西歐의 諸理論과 더불어 같은 位相에서 融合될 수 있도록 試圖하였다. 그리고 作品의 分析은 위 모든 것의 理論的 體制 안에서 행하였는 바, 本稿에서는 그 片鱗만을 要約・提示하였다.

얻어진 바로는, 藝術이란 有象無象의 리듬의 反復이며, 더우기 詩의 調和 美는 무엇보다도 反復法이 作用한 構造 속에서 그 빛을 더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다만, 疑懼되는 것은 本稿가 얼마나 立論의 餘地를 가져줄까 하는 점이다.

43) 金南石 : 上揭書 p.79 參照.